

비엔날레 감독 6인 추천... 이 작품 놓치면 후회합니다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6일~11월11일)가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긴 여정에 들어간다. 전 세계 40개국 92명(팀)에 이르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대면한다는 건 흔치 않은 기회다. 그러나 작품 수 303점, 전체 1478점에 달할 정도로 쭉뚝한 잔칫상을 맞닥뜨리면 난감하기만하다. 아시아 출신 6명의 여성 감독들이 각각의 소주제별로 추천한 '놓치면 후회할' 작품부터 골라보는 건 어떨까.

김선정(한국) '친밀성, 자유성, 익명성'



토비아스 레베르거 작 '신세 졌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캐롤 잉화루(중국) '개인적 경험으로의 복귀'



보리스 그로이스 작 '역사 이후: 사진 작가로서의 알렉산드로 코제브'

알리아 스와스티카(인도) '시공간에 미치는 유동성의 영향력'



페드로 레예스 작 '이매진'

◇김선정 감독의 '친밀성, 자유성, 익명성'=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의 기념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 '신세 졌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그는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황금사자상 수상 작가로, 전시관 입구를 세계 1·2차 대전 당시 사육된 전투원 위장 무늬처럼 'dazzle 무늬'로 바닥, 천장까지 위장해 선보이고 있다. 역시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1990년) 수상자인 미국 출신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의 작품도 볼만하다. 서구문화센터 전광판을 통해 선보이는 '광주를 위하여' 프로젝트는 20~22초간 간단한 메시지가 짹짹하게 비쳤다가 사라진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똑같이 키워라', '몸이 말을 할때 들어라', '엄마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서는 안된다' 등 21개의 메시지가 뉴스와 광고 사이에 끊임없이 침투한다. 임동식 씨의 '친구가 권유한 방흥리 할아버지 고목나무-여덟 방향'도 권했다.

◇캐롤 잉화루 '개인적 경험으로의 복귀'=보리스 그로이스의 작품 '역사 이후: 사진 작가로서의 알렉산드로 코제브'를 첫 손에 꼽았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코제브가 1950~1960년대 전 유럽을 여행하면서 찍었던 400장에 가까운 사진과 평생에 걸쳐 모은 1700장의 엽서를 전시하면서 진지한 철학적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캐롤은 또 광주극장에서 선보이는 우창의 9분 3초짜리 '삶을 인지하는 법(테이크 3)', 한동의 시나 낭송 작품 '환생'도 추천했다.

◇알리아 스와스티카 '시공간에 미치는 유동성의 영향력'=멕시코 작가 페드로 레예스의 '이매진' 작품은 수천 개의 총기로 만든 악기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총기로 만든 드럼, 기타 등의 악기로 실제 연주 가능하다. 악기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접하면서 무기 산업에 감춰진 문제점과 국가들 사이 권력 관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다. 사회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아공 쿠르니아완의 '신발 일기: 아디다스의 비극'도 주목해야 한다. 신발 한 켤레 중 한쪽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광주민중항쟁 등 세계 민중항쟁 희생자들의 고통과 고뇌를 체험토록 했다.

◇와싼 알 쿠다이리 '역사의 재고찰'=엑스어반 컬렉티브의 '대피 #2:1분 이내' 작품은 광주의 무술 도장을 찾아 대련 장면 등을 담아낸 역동적이다. 이 과정을 통해 남성의 신체를 들여다보고 '알파매일'(alpha male·우두머리 남성, 수컷)이 선점한 정치적 정황을 비판한다. 소피아 알마리아의 조각 작품 '스카우트'는 20세기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우주선 형태를 연상시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슬라브스와 타타스의 '존재의 영역'도 추천했다.

◇벤시 아다자나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5·18 구묘역 영정 사진 등 분단환경이 만들어낸 큰 틀에서 '5월의 광주', '희망버스' 등 정치적 이야기를 담아내는 노순택 작가의 작품을 추천했다. 크리스 마커(프랑스)의 작품 '레벨 파이브'(Level Five)는 미국과 일본 모두 감추려고 하는 역사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점 이외에도 제작 과정에서 숨진 작가의 유작이라는 점에서도 쟁거를 필요가 있다. 전남대 영어영문과 학생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인도 출신 작가 그룹 캠프의 '라디아 도정' 작품은 정보 유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마미 카타오카 '일시적 만남들'=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로 꼽히는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은 반드시 쟁거 봐야 한다. 올해 선보이는 '언어 프로젝트'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트위터를 통해 비엔날레 주제에 맞춰 자신의 미화적인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비엔날레 전시관 벽면에 생중계한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높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글을 올리며 비엔날레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과 소통한다. 뉴질랜드 출신 작가 스콧 이디의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작가는 광주 지역 아파트 단지 등 곳곳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55대의 새 자전거로 변신시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와싼 알 쿠다이리(이라크) '역사의 재고찰'



엑스어반 컬렉티브 작 '대피 #2:1분 이내'



벤시 아다자나(인도) '집단성의 로그인, 로그아웃'



노순택 작 '5월의 광주'



마미 카타오카(일본) '일시적 만남들'



스콧 이디 작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



“상상력을 느낀다, 쉽게 감상한다” ‘12가지 조각적 조립법’ ‘분할불가’ 등 이색작품들

6명의 공동 감독들이 추천한 작품 외에도 뛰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다. 김선정(47) 광주비엔날레 책임공동예술감독도 “관람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고 말한다.

그만큼 작가의 의도나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캐물지 않더라도 감상할만한 이색 작품들이 많다는 얘기다.

우선, 설치미술가 김범씨의 '12가지 조각적 조립법'이라는 작품은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모양 작품 12개를 만들어 판매한 뒤 판매액 전액을 통닭 쿠폰으로 바꿔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실물 크기 작품의 판매가는 마리당 300만원.

지난 2001년 49회 베니스비엔날레 때 한국관 출품작가인 마이

클 주의 시위 진압용 방패 108개를 이용한 작품 '분할불가'는 5·18 민중항쟁,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등을 다룬데다, 규모도 커 '사진'은 필수다.

크레이크 월시와 히로미 탕고의 '홈-광주'(Home-Gwangju) 작품, 필리핀 출신 작가 포코로 아나딩, 브라질 작가 모니카 나도르의 작품엔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대만 출신 준양씨의 'DAM(Daen Art Magazine)'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 상인, 큐레이터 등과 협업으로 지역 공동체의 관심 사항을 담은 잡지인 만큼 소장해둘 가치도 충분하다. 매주 2만부 발행되는 만큼 조기 품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개념미술가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그들이 떠난 곳에

서-바다, 2012' 작품은 시민들에게 돌려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만큼 얼마나 돌려받았는지도 관심이다.

5년 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현대미술축제 중 하나인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6월 9일~9월 16일)에 국내 작가로는 20년 만에 초청받아 세계 무대에 자신을 각인시킨 문경원·전준호씨의 '세상의 저편'은 배우 이정재와 임수정·노 개런티로 출연한 작품. 이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라있다.

지역작가들인 강운·이매리·박상화·장한별·김한열씨 등으로 구성된 '비밀법'이 비엔날레 전시관 앞에 설치한 '숲, 숲, 숲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밀법 팀 작 '숲, 숲, 숲 그리고 집'